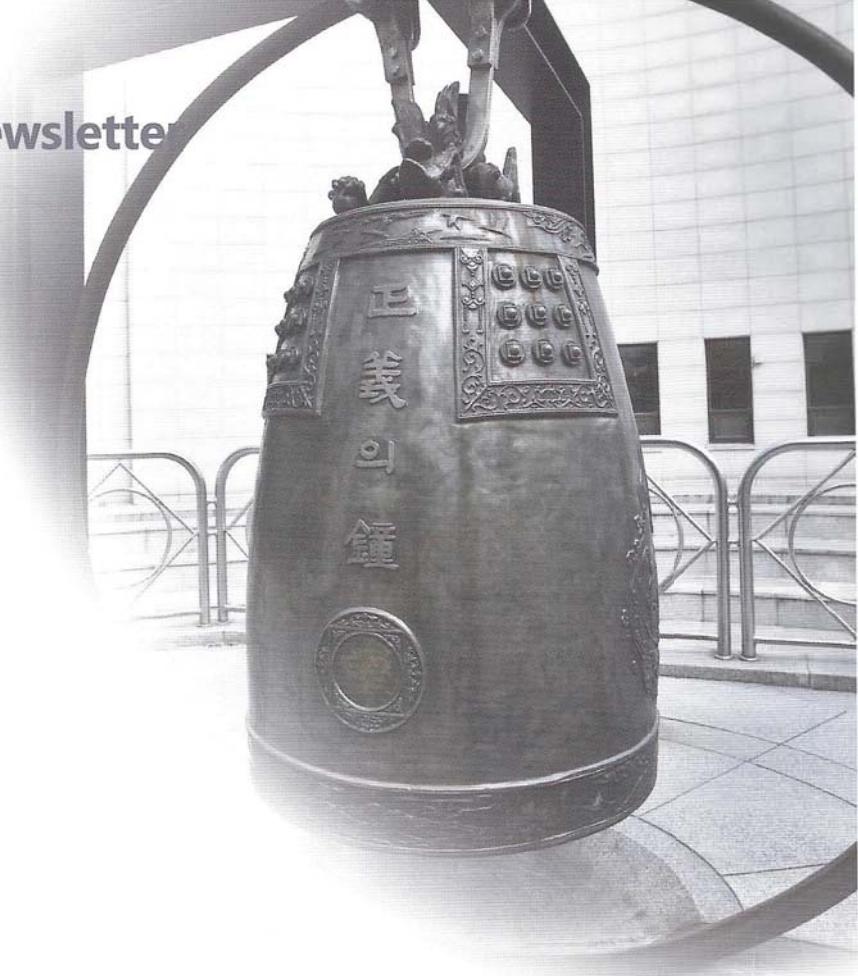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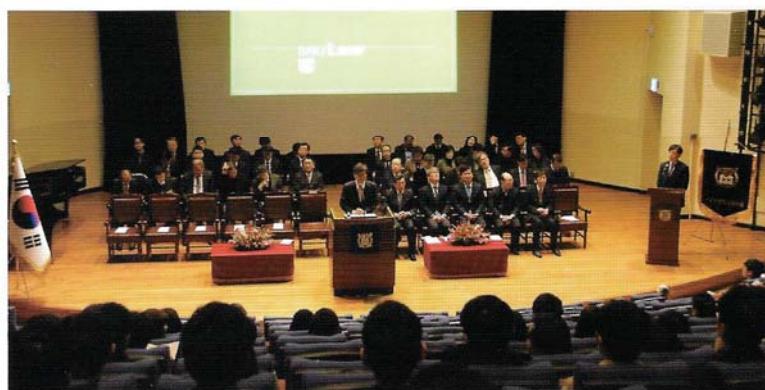
정의의 종

Vol. 28 2016. 4

발행인 이원우 | 편집인 김종보
151-743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02-880-6866 | Fax 02-889-7196
<http://law.snu.ac.kr>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2016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이 2월 29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입학식을 시작으로 150여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들은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 2page

신규 교수 임용



우리대학은 2015년 9월 1일자로 조교수 1명을 신규 임용하였다. 신규 임용된 임용(林龍) 조교수는 경제법 강의를 맡고 있다.

임 용
조교수

제1회 학봉상 논문공모 및 연구지원

서울법대 학봉상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학봉장학회가 후원하는 학봉상이 올해 제2회 논문공모 연구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제2회 학봉상은 오늘날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청년 실업, 세대 간 갈등, 한국 사회의 미래는?”이라는 핵심적 주제를 선정하였다.

논문 및 연구계획서 제출 기간은 2016년 8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총 상금은 1억원 내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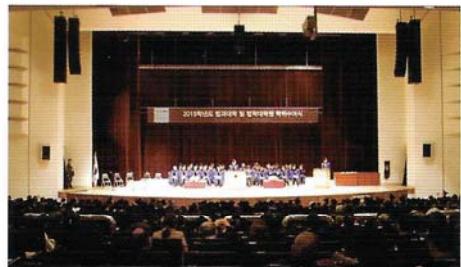
문 의

E-mail | hakbongprize@snu.ac.kr
우 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7동 209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학봉상 운영위원회사무국
전 화 | 02)880-2446
홈페이지 | http://law.snu.ac.kr/hb_award/

Contents

- 2 · 5 법대·법학대학원 소식
- 6 · 7 초청강연
- 7 · 11 연구소·센터소식
- 11 · 12 공개강좌 / 발전기금 출연현황

2016학년도 전기 법과대학 및 법학대학원 학위수여식



2016년 2월 26일, 전기 법과대학 및 법학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졸업식은 서울법대 교수진과 학부모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보 교무부원장의 학사보고, 학위수여 및 시상, 졸업식사, 축사, 졸업생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원우 원장은 졸업식사를 통하여 "사회로 첫 출발하는 이 때에, 졸업생들 각자가 자신이 처음 입학할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며 "다시 한 번 인생의 좌표와 궁극적 목표 등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기회를 가질 것"을 권유하며 축하를 전했다. 또한 졸업생들이 우리사회에서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자 전도자로서 정의, 평화의 정신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동건 법대 동창회장 역시 축사를 통하여 졸업생들의 학위 수여를 축하하고, 졸업생들이 서울법대 졸업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라'는 모토를 일깨웠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법학박사 10명, 법학전문박사 3명, 법학석사 23명, 법학전문석사 158명, 법학사 29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법무법인 지평 도서기부협약식



2016년 3월 10일, '법무법인 지평 도서지원 기부협약식'이 열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지평은 법학전문대학원 15동 5층 참고열람실에 비치할 도서에 대한 기금을 서울대학교법학발전재단에 기부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참고열람실은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이용하는 15동 5층 열람실 옆의 공간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교과서, 판례, 주석서, 논문 등을 찾아보고 동료들과 토론하며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년에 조성된 서가다. 이번 법무법인 지평의 도서 후원으로, 앞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더욱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17동 205호에서 진행된 이번 기부협약식은 개회, 참석인사 소개, 협약기관장 인사말, 협약서 서명 및 교환, 폐회,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협약서 교환 이후에는 이 날 참석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원우 원장, 김종보 교무부원장, 천경훈 학생부원장과 법무법인 지평의 이공현 대표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정원 변호사가 직접 15동의 참고열람실을 방문하여 현판제막식을 진행했다.

이원우 원장은 "이번 후원으로 학생들이 더 깊이 있는 학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며 후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공현 대표변호사도 이번 기부협약이 법무법인 지평의 지향점과 가치를 실현하는 일환임을 설명하며, 이와 같은 후원이 학생들의 학업과 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